

# 2016 찾아가는 유랑극단 무료공연

○ 제 목 : 체홉, 여자를 읽다 (15세 이상 관람가)

○ 일 시 : 2016. 7. 2(토) 14:00 (30분전 입장)

○ 장 소 :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(4층)

○ 대 상 : 동작구민

○ 관 략 료 : 무료

○ 문 의 : 교육문화과 (☎02-820-2945)

○ 내 용

-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인 파우치,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란 어떤 것일까. 핸드백처럼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, 그 안에 넣을 수 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욕심이다. 연극 <체홉, 여자를 읽다.(파우치 속의 욕망)>은 가정이 있는 여성들의 또 다른 사랑이야기이다.

○ 관련사진



- 제 목 : 사랑해, 엄마 (초등학생 이상 관람가)
- 일 시 : 2016. 7. 16(토) 14:00 (30분전 입장)
- 장 소 :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(4층)
- 대 상 : 동작구민
- 관 략 료 : 무료
- 문 의 : 교육문화과 (☎02-820-2945)
- 내 용

- 아이가 처음 태어난 순간,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떤 날, 처음 '엄마'라는 말을 했을 때 등 엄마에게 아이의 추억이 가득하다. 반대로 아이는 엄마와의 소중한 순간을 장성한 이후에나 되새기게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극 [사랑해 엄마]는 엄마와 아이가 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픈, 혹은 붙잡고 싶던 순간을 차례차례 보여준다. 어른이 된 '돌단이'가 추억을 회상하며 옛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으면 그것이 동화가 되어 들려지고 또 실체가 되어 무대에서 살아난다.

엄마에게는 다시 보고 싶었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진첩 같은 공연이 될 것이고, 아이에게는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을 약속한다.

○ 관련사진

